



겨울 월출산 소나무(54×19cm) 2004년.

자연의 경외감, 선현들의 기상 가득

■ 이호신 화백의 '소나무야 소나무야'展 (3월 31일~4월 6일, 금호미술관)

‘남산위에 저 소나무 월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애국가 2절의 가사중 일부다. 세계적 한결같은 모습의 ‘소나무’는 이 땅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산천과 주요경관의 표상이 되었다. 또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씩씩한 기상과 끈은 질개, 지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의 생활속에 정서적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호신 화백이 10여년동안 ‘소나무’를 화두 삼아 화첩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소나무야 소나무야’展에 가면 우리 산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나무의 기상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장흥 태고송’, ‘금강산 금강송’, ‘월송정의 밤’, ‘다산초당 소나무’ 등 51점이 벽에 걸린다.

인간 근성과 마찬가지로 이 화백의 화첩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모습 또한 천차만별이다. 끈기 짙은 소나무가 있는가하면, 철쭉 노인의 등처럼 굽은 소나무, 모세혈관의 싹뿔처럼

렘 얹히고 설친 소나무도 있다.

대관령 휴양림의 숲에서 시작해 홍성, 안면도, 예천, 포항, 진주, 통영, 강진, 보성 등 소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 이 화백의 열정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소나무를 찾아내게 했다. 다소 거칠지만 대상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 소나무의 형상에 ‘우리 것’을 담아냈다.

이번 소나무 화첩기행을 위해 이 화백은 유난히 발품을 많이 팔았다. 바로 눈(雪) 때문이다. 특히 태풍 ‘매미’가 핏줄이 간 울진 소광리의 숲을 다시 찾았을 때는 폭설 때문에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헤



회암-소나무 속(27.1×19cm) 2003년.

10년 전국 돌며 작업, 형태 천태만상 ‘회암-소나무 속’ 등 51점 전시

대담하고 간결, 대상 직설적 포착
염색한지에 수묵 절묘한 색채 대비

매기도 했다. 눈과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월출산 도갑사 소나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 덕분에 눈꽃이 내려앉은 역동적인 ‘월출산 소나무’를 화폭에 담을 수 있었다. 화폭이 오히려 비좁은 인상을 줄 정도로 옆으로 길게 뻗은 가지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한다. 달빛에 비친 정도 운문사의 고송(古松) 아

로 표현한 ‘회암-소나무 속’은 파란색과 검은 수묵의 절묘한 색채 대비를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화백의 이번 작품들에 더욱 눈길이 가는 것은 여백의 색깔을 쪽물, 치자, 홍화 등으로 자연 염색한 한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호신 화백은 ‘단일 주제로 다양한 내용과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서 염색한지 위에 수묵기법으로 소나무의 생태와 조형미를 재발견해보려 했다’며 ‘소나무의 기개와 기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선현들과 묵객들이 왜 그토록 소나무를 노래하고 예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화백은 “소수서원과 대관령, 정도 운문사를 동행하며 훼손되가는 소나무의 실상을 함께 고민하며 소나무에 대한 애정을 펼친 ‘술바람 모임’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02)720-5114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호신 화백



‘놀자’, ‘서울가자’ 무엇이 다를까?

2001년 개봉해 전국적으로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달마야 놀자’. 산사로 도망쳐 온 건달들과 스님들의 한바탕 소동을 따뜻한 웃음과 불교적 화두로 그려내 화제가 됐다. ‘달마야 놀자’의 속편에 해당하는 ‘달마야 서울 가자’가 7월 개봉을 앞두고 요즘 부산 대각사와 서울 일대에서 한창 촬영 중이다.

‘달마야 서울 가자’와 전편과의 차이점은 스님들과 건달들의 주무대가 바뀌었다는데 있다. 전편에서 건달들이 절로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스님들이 빛에 넘어간 절을 지키기 위해 도시로 하산한다.

아름다운 산사가 배경이었던 1편과는 달리 휘황찬란한 내은사인과 그 속에 담긴 도시의 탐욕까지 드러내게 된다. 산속에 묻혀 지내던 소박한 스님들이 휴대 폰, 지하철, 로또, 버스카드 등 속세의 물건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애크를 먹는 해프닝들이 벌어진다.

달마야 서울가자 7월 개봉...촬영 한창
빛더미 절 지키려...지나친 상업성 우려



7월 개봉예정인 ‘달마야 서울가자’의 한 장면.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스님과 건달들 간의 각종 내기도 이번 ‘달마야...’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369 게임’을 비롯해 노래대결, 차력시험 등을 통해 청명(정진영)·현각(이원종)·대봉(이문식) 스님 캐릭터의 개성도 한껏 강화된다.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들도 영화의 감칠맛을 더한다. 영화 ‘황산벌’에서 관광역을 맡았던 양진우 씨가 꽃미남 스님인 무진 스님으로, 건달의 우두머리인 범식 역을 신현준 씨가 맡아 새롭게 등장한다.

하지만 ‘달마야...’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스님들이 빛더미에 얽은 절을 지키려고 건달과 싸우다니 지나치게 상업적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배급사 씨네월드의 마케팅실 김지나 씨는 “제작진들도 이런 불교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계종 총무원과 스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편 못지않게 불교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시멘트 범당, 요사채, 고건축자재 판매단행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범당건축 스님께서 직접 직영하실수 있습니다.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고건축설계 : 예반그룹

생산품목 : 서가래, 부연, 초의공, 이익공, 계각자, 외삼포작, 외삼포/ 내오포작, 외오포/내칠포작 등 범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특징

- 시공에서 완공까지 책임기술지원
- 화재 벗어날수 있습니다.
- 건축에 필요한 부수자재 대여
- 최고의 작품으로 간단한 조립시공

한국불교건축자재종합전시관

본사및공장 :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
대표전화 : 041)554-8009, FAX: 041)567-2600